■ 상반기 광주·전남 주식투자자 손익 살펴보니

코스피서 벌고 코스닥선 손해봤다

저가주 선호에 대박 쫓는 투자관행은 여전
단일종목으론 '오스템임플란트' 최고 수익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은 코스피 종목에서는 수익을 올렸으나 코스닥 종목에서는 손실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조금 낮았지만 코스피시장 상장사들은 전국 평균보다 5배이상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주식투자자들의 거래실적을 파악한 결과 거래대금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은 코스피시장이 하이닉스(4천848억원), 대우증권(3천577억원), 현대증권(3천234억원), 삼성전자(2천580억원), 삼성중공업(2천46억원) 순이었다.

지역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를 1~5월까지 가장 많이 살 정도 꾸준히 매수했으며 올초에는 삼성전자 위주로 사들이다 조선주가 강세를 보인 5월에는 삼성중공업을, 증권주가 주도주로 나선 6월에는 대우증권과 현대증권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올초대비 수익률은 삼성중공업이 102.6%로 가장 높았고 현대증권(84.4%), 대우증권(52.0%)이 높은 수익을 안겨준 반면 하이닉스(-8.5%)와 삼성전자(-7.6%)는 오히려 하락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1천70억원)가 거래실적 1위에 올랐으며 제이엠아이(1천3억원), 헬리아텍(887억원), 모보(777억원), 팬텀엔터그룹(612억원)순으로 많이 사들였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165%)와 모보(46.3%)만 지역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줬을뿐 헬리아텍(-81.8%), 팬텀엔터그룹(-59.3%), 제이엠아이(-36.4%)는 큰 폭으로 하락에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웠다.

특히 헬리아텍의 경우 파푸아뉴기니아 가스전 개발사업 참여로 3천원대이던 주가가 1월 4만원대까지 치솟다 2~3월사이 폭락해 3천원대로 되돌아온 시점에 지역 투자자들이 많이 사들여 실질적인 피해는 훨씬 컷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투자자들은 또 올초 주가조작사건으로 국내 증시를 떠들석하게 했던 루보에서도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투자자들은 3월에 루보주식 84억원을 사들였는데 4월 중순 5만1천400원을 찍고 11일간 하한가로 추락해 1만25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5월에도 324억원을 샀지만 주가는 3천205원까지 급락했다.

■ 상반기 지역투자자 거래실적 상위종목

시장	종목	거래대금	등락률
유가증권	하이닉스	4,848	-8.5
	대우증권	3,577	52.0
	현대증권	3,234	84.4
	삼성전자	2,580	-7.6
	삼성중공업	2,046	102.6
코스닥	오스템임플란트	1,070	165
	제이엠아이	1,003	-36.4
	헬리아텍	887	-81.8
	모보	777	46.3
	팬텀엔터그룹	612	-59.3

(단위:억원,%)

한편 광주·전남지역 25개 상장사들의 올 상반기 주가 상승률은 코스피시장 상장사(15개사)가 평균 112.8% 급등해 코스피지수 상승률(21.5%)를 5.24배 앞질렀다.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사(10개사)의 주가 상승률은 22.3%로 코스닥지수 상승률(28.4%)에 못 미쳤다.

20개 종목이 상승하고 5개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여수에 본사를 둔 화인케미칼이 474.6%나 폭등해 최고의 미인주로 꼽혔고 화천기공(99.6%), 금호종금(86.5%), 와이엔텍(80.6%), 금호산업(79.9%) 순으로 많이 올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商議, 민선 4기 지자체 출범 1년 평가

"기업활동 여건 개선 안됐다"

불필요한 서류 요구 많아

민선4기 지자체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절대다수의 기업들은 기업활동 여건이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0일 발표한 '민선4기 지자체 1년, 규제행정 평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46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민선4기 지자체 출범 이후 기업활동 여건이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힌 기업이 87.1%였다고 밝혔다. 기업여건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7.1%에 그쳤고 '더 나빠졌다'는 답변도 5.8%에 달했다.

기업들이 겪은 애로유형으로는 '불필요한 서류요구'(38.1%)가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등 과도한 행정제재'(23.1%), '인허가 반려 및 지연'(21.7%), '기업에 과중한 부담 부여'(9.1%) 등의 순이었다.

또 지자체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공무원의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45.0%),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와 시간 과다소요'(29.1%),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자세'(14.8%), '하급기관의 권한이 제한돼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하는 점'(10.5%) 등이 지적됐다. 지자체 규제행정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든 기업이 78.0%로 '지자체장의 리더십'(15.6%), '중앙정부의 감시와 노력'(6.4%)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연합뉴스

■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느끼는 구제 애로 유형 (단위:%)

구분	비중
불필요한 서류 요구	38.1
영업정지, 과징금 등 과도한 행동제재	23.1
인허가 반려 및 지연처리	21.7
기업에 과중한 부담 부여	9.1
기타	8.0

사랑 나눠 드립니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가 운영중인 5기 '젊은잎새 사랑나누미' 봉사단원들이 최근 광주공원내 '사랑의 식당'으로 전달될 쌀포대를 운반하고 있다. '젊은잎새 사랑나누미'는 호남지역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보해 임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소외된 이웃을 찾아 청소, 노인점심 제공, 장애우 목욕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해양조제공〉

비엔날레 입장권 휴대전화로 예약

10월부터 서비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창곤, www.nia.or.kr)은 10월부터 휴대전화로 세금을 내고 입장권을 살 수 있는 'u-페이먼트(u-Payment)'의 실현을 위해 10일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람 예약 및 결제서비스'와 광주시의 '모바일 세금/공과금 납부 및 비엔날레 티켓팅 서비스'가 구축된다.

문화재 관람 예약 및 결제서비스는 문화재청과 함께 경복궁, 덕수궁 등 5개 궁(宮)과 광릉, 태릉 등 14개 능(陵)에 u-페이먼트 인프라를 구축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한 입장권 발급과 휴대전화를 통한 문화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세금 · 공과금 납부 및 비엔날레 티켓팅 서비스는 광주광역시 납세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공과금 및 세금 납부를 신청하면, SMS로 고지서를 전송하고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올 10월 개최 예정인 광주 비엔날레 입장권을 휴대전화로 예약하면 바코드 형태의 입장권과 함께 광주 비엔날레 작품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오리고기도 프랜차이즈 시대

화인코리아 가맹점 모집

닭·오리고기 가공업체인 나주 ㈜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사진)가 전국 최초로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에 나섰다.

10일 화인코리아에 따르면 나주공장에서 생산한 오리고기 제품을 전국 가맹점에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키로 하고, 최근 가맹점을 모집 중이다.

화인코리아는 올초 'FTH 파트너스'라는 별도법인을 만들어 이미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에 시범 체인점이자 1호 직영점인 개롱점을 개점한데 이어 지난 달에는 서울 송파점, 경기도 안양점 등 2개의 개인 가맹점을 출범시켰다.

이들 가맹점에서는 오리삼겹살·주물럭·바비큐·떡갈비·슬라이스 등 10여가지의 오리고기 전문요리를 '쿵덕스'라는 브랜드로 선보이게 된다.

나원주 대표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요리를 개발, 연말까지 전국에 25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오는 2011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5년 금성축산으로 출발한 화인코리아는 연간 6천여만 마리의 닭과 오리고기 제품을 생산, 올해 현재 1천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액도 5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차 임금협상 또 결렬

10일 이어 11·13일 부분 파업

기아자동차의 2007년 5차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10일 주·야간 6시간씩에 이어 11일 주·야간 4시간씩, 13일 주·야 6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9일 소하리 공장에서 가진 5차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심각한 견해 차이로 3시간 50분만에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금 12만8천805원(기본급 대비 8.9%) 인상, 생계비 부족분(일종의 성과금) 200% 지급, 분임원 수당 1만2천원 지급, 사내 모듈공장 유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동결 ▲인력운영의 유연성 ▲편성효율 개선 ▲판매 '거점효율화' 실시 ▲안전사고 처리규정 요구 ▲고비용 복지 중단 등을 제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10일까지 부분파업에 따른 손실액은 광주공장 차량생산차질대수 3천400대에 540억원, 기아차 전체는 9천258대에 1천355억원에 달했다.

6차 교섭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소하리 공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초등생 여름방학 농촌체험하세요"

농협전남본부 23일부터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농촌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농촌체험 팜스테이를 실시한다.

1기(23~24일)와 2기(26~27일)로 나눠 모집하며, 체험장소는 화순군 도암면 봉하마을, 강진군 성전면 청자골 달맞이마을이다.

이번 팜스테이에서는 자연생태 관찰, 전통음식, 전통놀이, 서편제 창배우기, 야외볼링 게임, 물놀이, 농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밤에는 캠프파이어와 멍석 위에 누워 캄캄한 밤하늘의 사자·백조·전갈·페가수스·카시오페이아·북두칠성 등 별자리도 찾고, 우리 전통음식인 인절미와 수제비를 직접 만들어 먹는 체험시간도 준비된다.

농협 관계자는 "팜스테이는 도시민에게 건전한 놀이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 소득을 높여주는 도·농 상생프로젝트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220-7725~28.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